



울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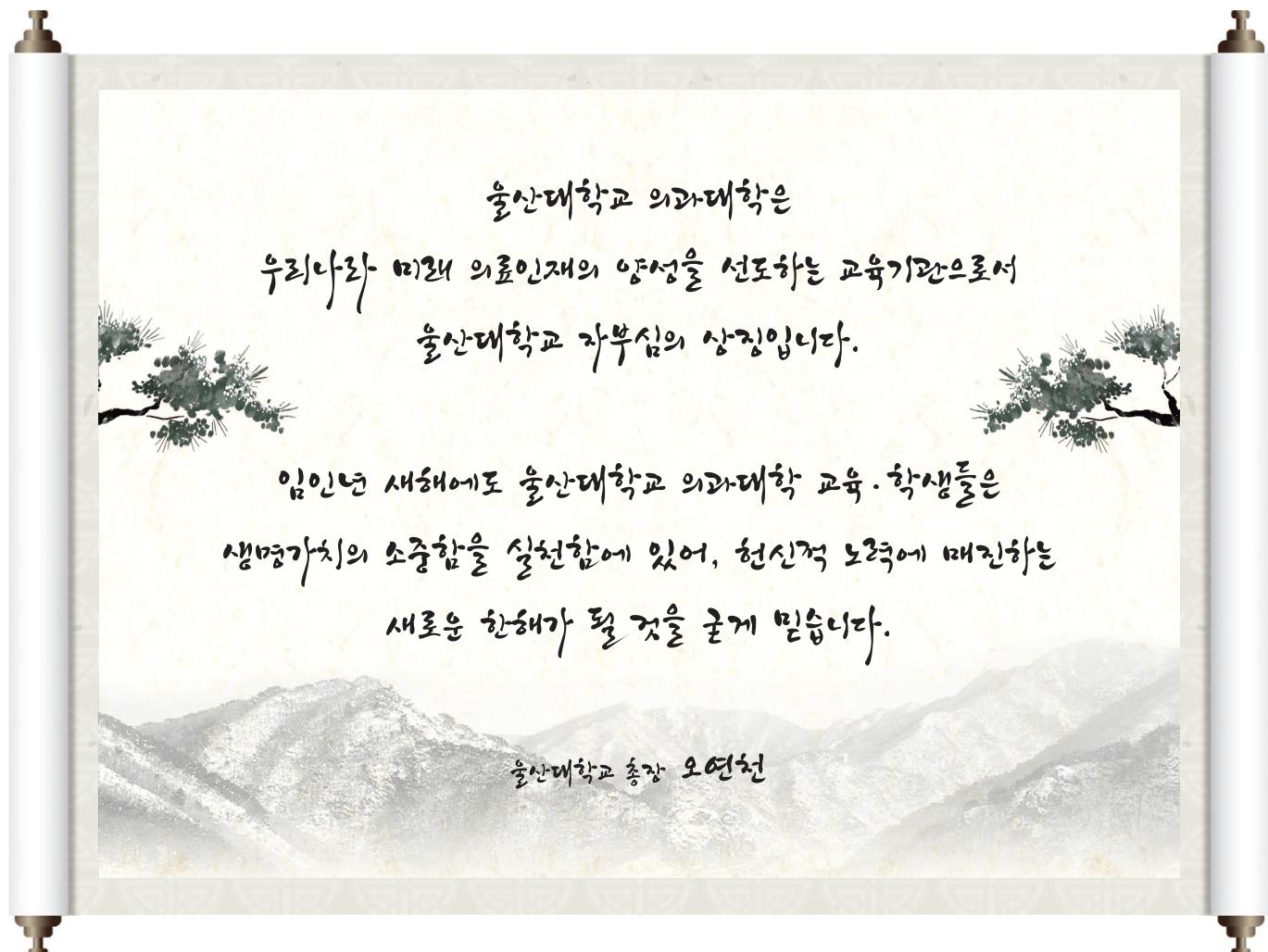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NEWS LETTER

January of 2022 Vol.45

소식지

의과대학

발행인 채희동 편집인 도경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s://medulsan.ac.kr> 소식지 홈페이지 <https://medulsan.ac.kr/eletter>



02 [신년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사 06 [Interview] 울산의대 학장 채희동 09 [기획기사] LCME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11 [기획기사] 우리 의대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 첫 번째 수상자 시상 13 [교과탐방] 1차 진료의, 이비인후과적 지식 활용…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목표 15 [학생기자가 간다] 세계적 수준의 MAT 확인…국내외에서도 관심 18 [건강칼럼]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와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19 [졸업후기] 졸업을 앞두고 6년간의 대학생활에 대한 소회 19 [졸업후기] 의과대학 생활 6년을 마무리하며 20 [의대소식] 의학교육센터 본격 개소, 운영 20 [의대소식] 8기 졸업생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사



울산의대 구성원 여러분들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COVID-19 재난 상황이 해를 넘겨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아주 큰 사고없이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한 점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비통함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전 우리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가 온 뒤 더 단단해지는 자연의 섭리를 믿으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잘 넘기고, 새로운 각으로 활기찬 모습의 우리 모두를 다시 만나 확인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무부총장 송재관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COVID-19로 인한 역경 속에도 우리 울산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인류의 행복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술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도 COVID-19 발병 초기부터 울산지역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원하여 환자 치료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한 결과, 지역사회로부터 큰 신뢰를 얻으며 울산의대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일조 했습니다. 새해에는 정밀의료와 환자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임상빅데이터 및 의료정보 고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환자의 편의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시설투자로 스마트병원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대한민국과 글로벌 의료의 리더로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울산대학교병원장 정웅기



의과대학 교육도 컴퓨터, 로봇, AI 등의 발전으로 큰 변화를 실감하는 시대입니다.

미래 의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과과정도 중요하지만, 환자와의 공감, 확고한 의료 윤리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학생 여러분,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에서 침단 의료를, 정읍, 보령, 홍천 등 지역의 아산병원에서 일차 의료 현장을 경험하며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바로 알고 미래 의료의 리더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의료원장 박성욱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2년을 지나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지만, 금년에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결국은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의료와 교육현장이 잘 적응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에도 뉴스위크가 선정하는 세계 상위 병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학과 병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대학과 병원이 같이 힘을 합하면 당연히 미래 의료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울산의대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일



어느 시기나 되돌아보면,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시련을 뛰어넘는 놀라운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강릉에서 보낸 6년간은 강릉아산병원 구성원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영동지역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고 질적, 양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된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한마음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강릉아산병원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아산의 품을 떠나 의사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의대 가족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어 매순간 성장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강릉아산병원장 하현권

울산의대 가족들과 함께 희망을 안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언제나 의과대학을 위해 열정을 갖고 애쓰시는 교수,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이 있어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시작은 늘 설레이고,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 또한 강릉아산병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1년을 보낸 우리 강릉아산병원은 앞으로도 울산의대의 일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COVID-19로 힘들었던 모든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고, 울산의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날들로 채워 나가길 기원합니다.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



새해 환자와 공감, 동료와 협업하는 졸업생 만들기 첫 걸음 시작



존경하는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 이루시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시작된 COVID-19 사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하면서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가졌던 일상이 언제였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하여, 비대면 수업과 대면 현장 실습 등이 위태위태하면서도 그런대로 잘 진행되었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에서 졸업생 1명을 포함하여 42명 모두가 합격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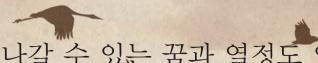
지면을 빌어, 교수님들과 학부모님들, 우리 교학행정국의 교직원들, 그리고 외부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문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노력에 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대는 지난 몇 년 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의 개인주의적, 경쟁적, 지식 습득 위주의 과정에서 탈피하여 협동과 집단 지성, 성과 중심의 과정으로의 변화, 즉 'LCME'가 올해 예과 2학년에게 처음 적용됩니다.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면서도 역량은 강화하고, 환자와 공감하며 동료와 협업할 수 있는 졸업생을 만들고자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과 2학년이 본과 4학년이 되는 2026년이면 우리 의대의 모든 학생들이 변화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고, 시행하면서 조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울산의대 가족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모두 극복되어 잘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꿈과 열정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자랑스러운 교수님들과 동문 선생님들, 교직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들 모두 우리 의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의대 학장 채희동

다사다난 했던 학장 임기 4년 마무리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는?

우리 의대 채희동 학장이 2월로 성공적인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에 지난 4년간의 임기 중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Q. 새해 인사

존경하는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COVID-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Q. 학장 재임 기간 중 주요 성과와 해결 과제

먼저, 4년 전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중책이라는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의 임기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장의 공약 및 중점 과제로 제시드렸던 우리 의대의 교육 과정의 변화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난관이 있었음에도 여러 교수님들의 큰 노력과 관심, 교직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2022년 올해 예과 2학년에 적용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존의 지나친 경쟁적 관계와 수동적인 단순 학습 위주의 과정을 과감히 버리고,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

는 형태의 강의는 최소화하여 수업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자기 주도적, 토론식 학습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형태의 과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학년 연구와 선택 과정의 기간을 증가시키고, 좋은 의사의 근본이 되어야 할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영역의 교육 과정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수평 및 수직 통합된 방식으로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동료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계의 리더로 양성해 나가려는 첫 걸음이 올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예과 2학년이 본과 4학년이 되는 2026년이면 우리 의대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된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고,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울



2019년 8월 의대발전세미나



2019년 9월 울산지역 보건의료관계자 간담회

산의대 가족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모두 극복되어 잘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기 동안 의료계 사태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그리고 COVID-19 상황 등으로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어려움으로 조금씩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처음부터 여러 교수님들과 동문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울산의대 가족들의 공감과 성원이 없었다면 진행되지 못했을 일이며,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Q. 앞으로 세계적인 의대로 발전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의대는 30년이 조금 넘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의 전폭적인 지원, 교수님들의 노력, 동문들의 공헌, 학부모님들의 관심, 교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30년은 국내 유수의 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의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울산의대 가족들이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의 지원은 의대 운영에 있어 너무 큰 도움이 되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자원이나 물질적 지원을 넘어 학교와 같이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적 관계에 대한 설정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들은 병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3개의 병원은 울산의대 교육병원이고,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제자이며, 환자 진료와 연구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과 경쟁력 있는 학생들의 배출을 위하여 병원과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졸업생들이 다시 병원의 의료 인력으로 일하게 되고 교수가 되어 다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순환의 과정을 위하여 모두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는 교육병원들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관계라는 점, 그래서 의대는 교육병원들의 한 조직이 아니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지원받는 곳이며, 교육병원들의 눈부신 발전과 의대의 힘찬 도약은 함께라는 점에 대한 절실한 사고의 정립이 더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대에서는 현재의 교육 과정의 개편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의학 지식의 습득 방법이나, 향후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예측이 되지 않는 의료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한 교육 내용의 대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신없이 바뀌는 의학 지식은 앞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멀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의사를 길러 낼 것인가, 혹은 전공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이제 남은 과제이다 세계적인 도약을 하느냐 뒤처지느냐의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이제 지역적 컴퍼스의 개념도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고 앞서가는 대학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외국 유수의 대학과 수업 및 실습을 공유 교류하고, 더 나아가 학점도 인정하는 등 대학과의 울타리가 약해지는 상황, 교실이 없는 시대를 우리 의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교육 과정 개편의 완성과 함께 차기 학장 단이 앞장 서서 울산의대 전체 가족들과 깊이 고민할 문제로,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향후 우리 의대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2019학년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정년식

2019. 8. 12(월) 18:00



2019학년도 교원정년식

소통 1클래스룸 및 의학교육센터 개소식

일시 | 2021년 12월 29일(수) 장소 | 의과대학 1층 소통 1클래스룸



2021년 12월 교육센터개소식

Q. 우리 의대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 학생, 학부모 등에게 당부 하시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수님들이 울산의대 학생들이 우리의 제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라는 생각을 더 해주시는 것, 그래서 언젠가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학교의 규모에 비해 3개 병원,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규모가 커서, 교수님들은 우리 학교에 대한 소속감, 우리 학생들이 제자라는 의식이 다른 유수의 사학들에 비하여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돌본 환자가 완쾌되어 퇴원할 때, 자신이 밤을 새면서 연구하였던 논문이 실릴 때 느꼈던 보람을 우리 학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보여 줄 때 똑같이, 아니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에 대한 주인 의식이 약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병원들의 규모가 크고 교수님들이 많아 교육적 관심을 잘 받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 의한 것임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학생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향후 본인들이 이 병원들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때나, 졸업하여 수련이나 전공의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울산 의대 학생 혹은 졸업생으로서 행동에 매우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의대생들의 특징일 수도 있으나 고등학교 때의 패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 속에 살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이유도 현재 유망과, 인기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망과나 인기과에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유망과나 인기과도 변할 수 있는데, 본인 적성에 맞고 혹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과를 선

택하는 것이 본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함을 깊이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개원으로 성공한 의사, 연구에 매진하는 의사 혹은 의학자, 어려운 수술로 밤을 새는 의사, 행정적으로 큰 수완을 보이는 병원과 학교 의사 행정가, 정부 기구에서 일하는 의사 등, 다양한 삶이 존재함을 알고, 어떠한 삶이 나에게 맞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기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이제 저는 4년의 임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료계 사태로 인한 초유의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COVID-19 사태에 따른 학사 일정과 각종 의학 행정 및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많은 불편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부족한 학장을 지지해 주셨던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대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울산의대 가족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도약을 위한 여정에는 많은 난관과 대내외적인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잠재력이 있고, 또한 꿈과 열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수님,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채희동 학장 주요 프로필]

- (전)울산의대 학생부학장
- (전)울산의대 교무부학장
- (현)대한폐경학회 회장
- (현)대한피임생식학회 회장



2019년 11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



2020년 10월 울산의대 7기 의대 발전기금 전달식

LCME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수업 내용, 수업 방식, 평가 방식 등 변화 추진 중

지난호에는 'LCME 교육과정 무엇이 다른가?'라는 내용으로 △새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원칙, △기존 교육과정과 새 교육과정의 최대 차이점, △자기주도 학습과 능동학습, △인문사회 영역 강화, △Pass/Fail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지난호 관련 내용은 우리 의대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참고하면 된다.

1편. LCME 교육과정 무엇이 다른가?

2편. 어떻게 준비 되고 있는가?

3편. 기대와 도전

교육과정의 설계

▲ 교육과정의 구조 (Curriculum Map)

교육과정의 구조는 시기, 기간, 통합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계획된 교육과정 지도 (임상실습과정은 제외)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 선택과정 준비

학생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의학 및 의학 외적인 영역에 대해서 선택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7회분의 동영상 강의와 1회의 실시간 미팅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약 20개 정도의 수업이 준비가 되었으며,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 등의 외부 수업을 허용하고 발굴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중이다.

▲ 증상 및 정후 수업 과정 기획

임상의학 통합교육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질환별 이해와 접근은 물론이고 증상과 정후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 호흡기, 심장과 순환기, 신장과 요로계를 중심으로 증상과 정후에 대한 수업을 기획하고 있다.

▲ 병원 실습의 다양화

환자 진료에 의료진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환자와 의료기관을 경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의료원 산하의 2차 의료기관인 정읍, 보령, 홍천, 금강 아산병원 측과 학생 실습에 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2022학년도 의학과 4학년이 2주 씩 실습을 진행 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병원 실습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시킬 예정이다.

예 2	인문사회 (Communication, trust, society)	세포와 대사	인문사회 (competence)	선택 / 재 평가	여름방학	구조와 기능	인문사회 (patient)	선택 / 재 평가	질병과 치료	선택 / 재 평가	겨울방학
의학연구(임상)							의학연구(기초)				
본 1	M1 (cardio, pulmo, renal, URO)			선택 / 재 평가	여름방학	M2 (GI, surgery)	입 문	M3 (hemato-onco, INF, allergy)		입 문	선택 / 재 평가
							역 구			역 구	겨울방학
본 2	M4 (ENDO, female, OBGY)	입 문	M5 (PED, OBGY, geriatrics, FM)	선택 / 재 평가	여름방학	M6 (NS, NR, PSY)	입 문	M7 (OS, EYE, ENT, DER, ER)	입 문	선택 / 재 평가	겨울방학
	T IME	연 구				T IME	연 구		연 구		

교육과정의 홍보

새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는 기회가 달을 때 마다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식지, E-mail 등을 통하여도 홍보를 하였고, 주임교수 회의 등 주요 모임에서 발표를 하였다. 모든 교수 개발 세미나에서 시작 부분에 새 교육과정 홍보를 시행하였다.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1시간 분량의 온라인 동영상이 제작되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년 이 비디오를 시청 하도록 의무화 하고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1월 9일부터 3일간은 대면으로 교수님들께 새 교육과정의 준 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새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제도와 시설

▲ 학칙 변경 및 교육과정 운영지침

△ Pass/Fail 평가와 진행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였다.

△ 새 교육과정 운영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2차 개정판을 만들고 있다. 과정 시작 전에 최종본이 완성되어 관련 직원과 교수들에게 배포가 될 예정이다.

▲ 학사지원프로그램 (LMS)

수업 정보, 시간표, 수업계획서, 수업자료, 보고서 제출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둘는 프로그램을 학사지원프로그램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한다.

현재 까지는 본교의 U-Class 시스템과 의과대학의 Calendar 프로그램을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이며,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1단계 기본 틀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 소통1 클래스룸과 의학교육센터

△ 팀활동 클래스룸 구축 : 플립러닝과 거꾸로 학습, 팀 활동과 토론 등이 기본 수업이 되는 만큼 강의실의 구조와 기능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어야 한다.

따라서 의예과 2학년 강의실을 1층으로 옮기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중이다. 강의 형식으로 좌석이 배치되지 않고 토론식 팀활동을 하도록 기본 세팅이 되는 구조이다. 2021년 12월에 완공을 하였다.

△ 의학교육센터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행정부서가 개설되었고 현재 대학 1 층에 물리적인 시설 공사도 완료하였다.

수업 모니터링실, 팀 학습실, 온라인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교수 및 학생의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박주현(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예상 하지 못한 시행착오가 분명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온점에 미루어 잘 진행 되리라 기대를 갖게 된다.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설명 세미나 (2021. 8. 23)



LCME 교육과정 세미나. 기초의학과정. (2021. 9. 24)



교수개발 세미나 서울. Zoom의 활용. (2021. 5. 17)



인문사회의학과정 준비 세미나 (2021. 9. 30)

우리 의대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 첫 번째 수상자 시상

2021년 제도 신설…최우수상, 우수상

우리 의대가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에 대한 수상자를 시상하였다. 지난 2021년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진행된 시상에는 김성훈, 정의재 학생이 수상하였다.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은 우리 학교 학생이 재학중에 의학연구 실습과정에서 연구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하여 제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면, 학교에서 150~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는 제도다.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 시상제도는 영상의학교실 송호영 교수 가 지난 2008년 5월 학생 1저자 SCIE 논문을 게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학교에 기탁한 용도지정 발전기금 5,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어 지난 2021년 5월 6일 의학연구실습과정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교무회의를 거쳐 지난 2021년 6월 주임교수회의에서 논의, 7월 주임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최종 승인되었다. 의학연구실습과정 임영석(연구부학장, 내과학교실 교수)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신설한 학생 논문제재 장려상은 국내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 의대 교육에 있어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제도는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LCME (less competitive more excellent)의 철학과도 잘 부합한다. 아무쪼록 새로운 제도가 잘 자리잡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학 연구능력을 교육하고 진작시키는데 있어 좋은 촉매제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김성훈 학생



김성훈 학생

Q. 수상소감

뜻깊은 상에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 새로운 분야에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수술 환자에게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의 새로운 약동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에 배웠던 내용보다 더 심화된 지식들을 요구하여 약동학과 통계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분석 프로그램도 처음엔 생소하였지만 연구를 지도해주신 최병문 교수님께서 워크숍에도 초대해주시고 여러 관련 자료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힘들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학생연구장려상 및 연구에 관심이 많은 우리 의대 학생(후배)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 또한 본과 3, 4학년이 되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임상실습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가 있고,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만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Q. 앞으로 연구와 관련한 목표가 있다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고, 가지고 있던 지식들에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성훈 학생의 연구결과는 ‘2021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에 ‘Development of a new pharmacokinetic model for target-concentration controlled infusion of cefoxitin as a prophylactic antibiotic in colorectal surgical patients’라는 내용으로 게재되었다.



[미니인터뷰] 정의재 학생



정의재 학생

Q. 수상소감

우리 의대의 학생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 신분으로도 좋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작성한 논문(Osteoporosis International에 'Population-based,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age- and sex-related femur shaft geometry differences'로 게재)이 발표되는 과정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을 느껴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신설된 학생연구장려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낌없는 지도해주신 정형외과 김지완 교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와 논문 작성이 처음이라 낯설고 막막함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꼼꼼한 가르침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의학과 연구 모두에 아직 미숙한 학생임에도 좋은 논문을 완성하여 좋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Q.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본과 2학년 때 이번 연구를 시작하였고 논문작성을 목표로 울산의대의 교과과정에 속해 있는 의학연구실습과정의 계속 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학술대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국내외 여러 학회에 포스터발표, 구연발표의 형태로 참가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하면서 연구를 남들에게 알리는 과정에 대한 흥미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연구과정에서 기본적인 통계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의대 교과과정의 의학통계 수업을 기반으로 공부했었고, 논문작성 법에 관해서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신청하여 수강하였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Q. 학생연구장려상 및 연구에 관심이 많은 우리 의대 학생(후배)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의학연구실습과정이 개편되어서 1년만 연구를 경험하고 선택적으로 과제를 연장해서 하던 저희와 다르게 본과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장기간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년만 해도 학생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지 지도교수님 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참여 정도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참여하는 만큼 연구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자신의 기대치를 지도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연구에 참여하면 잘 지도해주시실 것입니다. 어떤 주제의 연구를 하든 예과 2학년 때 배우는 의학통계와 근거중심의 학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기에 수업을 잘 들고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통계의 경우에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오차를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줄 아는 것 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논문작성법의 경우에는 매년 울산의대 학생 대상으로 교육이 있기도 하고, 의학도서관에서 종종 특강을 열고 있기에 필요하면 찾아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가 정해졌다면 주제에 관한 다양한 레퍼런스 논문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이 추후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앞으로 연구와 관련한 목표가 있다면?

올해 지도교수님과 함께 상반기 후속 연구를 마무리 하여 논문을 작성하였고 Scientific reports에 'Differences in femur geometry and bone markers in atypical femur fractures and the general population'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때 연구 경험을 토대로 의사가 되어서도 연구에 관심을 이어가고 차차 경험을 쌓아서, 언젠가는 직접 임상에서 경험하며 얻은 저의 아이디어로 의학계에 길이길이 남을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Q. 기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의대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산병원에는 참고문헌 탐색, 통계, 영문 교정, figure 작성 등 연구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많은 우리 의대 학생들이 논문이 출판되는 과정에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진료의, 이비인후과적 지식 활용...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목표

학생들 이해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이비인후과 4학년 실습과정 교육 목표는 실습 후 학생들이 1차 진료의로서 이비인후과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귀, 코, 목 환자의 이상 부분을 판단해 간단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이해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외래와 수술장에서 실제 환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머리 속에 남아있는 지식을 실제 진료에 활용하도록 1, 2학년때 배웠던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를 외래와 수술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실습 시간을 구성하였다.

▲ 이비인후과 관련 검사 및 실습 참여 등

실제 이비인후과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특수 검사를 실제로 실습 해보거나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다. COVID-19 환경 때문에 외래 실습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비인후과 특이적인 검사실과 외래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비인후과 검사와 진료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의사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비인후과적인 기본 소양 확보 집중

짧은 실습기간 동안 모든 질환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이 맡았던 환자를 중심으로 증례토론과 질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다시 동료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비인후과에서 어떠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의사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비인후과적인 기본 소양을 가지도록 실습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수진과 임상강사, 전공의들 모두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们 또한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습 학습 목표에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많이 변화된 교육내용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검사와 관련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미리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미리 숙지할 경우 실습 과정에서 검사와 질환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다.

장용주 주임교수는 “처음 조와 달리 후반부 실습학생에게는 외래 진료와 외래 검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환자와 질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앞으로 COVID-19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외래에서의 참관의 기회를 더 주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내용

△코피 환자 보는 법, △이경 검사법, △후두경을 통해 성대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연관되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또 난청 환자에게서 시행하는 검사와 결과 해석이 쉽지 않지만 학생들이 재미있어 한다.

코피, 난청, 변성, 인후통 등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거나 본인이 경험했지만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쉽게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가장 어려워하는 교육 및 해법은?

반면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지럼증과 이에 대한 이해이다.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곳이고, 평형기능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병태 생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를 밝혀내기 위한 평형기능 검사는 간접적으로 기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환자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

1차 진료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주로 오는 △어지럼증 환자의 접근, △놓치지 말아야 할 감별 진단, 이를 위한 △간단한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려운 해부, 병태 생리를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장용주 주임교수는 “결국은 다빈도 이비인후과 질환 환자들의 증례를 직접 체험하고, 동료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중 가장 큰 아쉬운 점과 해법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실습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외래에서 적극적으로 참관하고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토론식 수업이 가능할 것 같다.

장용주 주임교수는 “학생들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환자를 잘 돌보는 의사도 좋지만 올바르게 정립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의사가 되도록 의학적인 측면을 떠나서 무엇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도록 배려하면 좋겠다.”며, “의대 교수들이 마련할 수 있는 강좌와 교육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으로의 연수도 좋겠지만 국내 유수의 기관 또는 과학자, 의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장용주 주임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용주 주임교수

Q. 이비인후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면?

이비인후과는 기본적으로 surgery이다. 현재 많은 개인의원들에서 primary physician과 같은 역할로 수술 없이 외래진료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비인후과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외래, 검사, 수술 모두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좋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분야도 다양해서 수술 또한 수분이 걸리는 것부터 하루 종일 소요되는 수술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Q. 이비인후과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비인후과는 인간의 오감중 중요한 후각, 청각, 미각을 담당한다. 또한 상기도질환을 담당하여 생물학적인 생존에 가장 중요한 호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영역의 다양한 질환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연구의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매우 유병률이 높고 사회가 좀 더 발전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성이 많다.
스마트한 젊은 의사들이 평생을 걸고 연구와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다양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의학분야이다.

Q. 이비인후과 실습과정과 관련하여 변화 준비중인 부분은?

지원자에 한하여 응급실 환자 보는 법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비인후과적인 응급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향후 의사가 되어서 응급실 환자 대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존의 외래 실습시간을 다시 시행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하려고 한다.

Q. 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단순히 이비인후과 교수로써가 아니라 선배의사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큰 꿈을 갖도록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길 바란다. 의사사회는 보수적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의심을 갖도록 하고 그 의심을 스스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내가 의사로써 의학의 발전과 이 사회와 이웃들에게 기여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치열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Q.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의대 학생들은 매우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보호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는 느낌을 가끔 받는다.
의사가 되었을 때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절박함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의사로써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기 바란다.

세계적 수준의 MAT 확인…국내외에서도 관심

환자 안전 중요성 실천하는 병원 확인
심정지 악화 안되도록 응급 관리 역할 핵심

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병실 복도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다. 응급 상황으로 보고 CPR 방송을 띠웠고, 곧바로 MAT가 출동했는데, 다행히 심정지가 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산과의 경우 출산 후에 쓰러지면 감별할 질환이 굉장히 많다. 심근병증, 출혈, 패혈증, 경색 등에 의한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감별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 본인은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다. MAT에서 혹시 모를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를 한 결과, 환자의 우심실이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폐색전에 의한 쇼크를 강하게 의심하고, 응급으로 치료를 시작해 15분만에 혈전용해치료까지 갔고, 결과적으로 환자는 잘 퇴원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MAT 활동 내용

MAT는 중증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vital sign, 활력징후)을 확인해 사망률이 급증하는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자 활동 내용이다.

사망률을 감소는 많은 의료 분야에서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만큼 달성을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MAT에서는 중증 환자의 바이탈 사인과 심정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 환자를 말하는데, 현재 국제적인 컨센서스는 바이탈 사인을 좀 더 넓은 범위로 봐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존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외에 산소 포화도와 의식 상태 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최신 지견이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낸 근거들이 인정되면서, 서울아산 병원 역시 MAT의 노력으로 현재는 산소포화도를 바이탈 사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심정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중증 환자의 경우의 사망률은 80%에 이르는데, 이는 심정지를 겪지 않은 중증 환자의 사망률 인 2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MAT 역할은?

되도록이면 심정지가 오지 않도록 바이탈 사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악화 상태에 접어들지 않도록 응급 관리하는 것이 MAT의 역할이다.

물론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MAT가 응급 치료를 해서 소중

한 생명을 살리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심정지 이전에 관리하는 것이 환자 생존률 향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MAT만의 대표적 고종과 오해

MAT의 역할은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와의 관계에서 파악해보자면, 주체적인 입장보다는 보조적인 도우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주치의가 있고, 중환에 대해서는 MAT가 특별히 추가적인 관찰 및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과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다.

▲ MAT 의료진과 환자 주치의 간 의학적 판단 차이

MAT 의료진과 환자 주치의 간 의학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중환에 대해서는 MAT 의료진이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MAT와 일반 의료가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운영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전달될 경우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MAT의 경우 환자의 예후 판단과 치료 평가에 대한 의견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공유하는 것에 조심스러우며, 일반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중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MAT

다음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MAT의 존재를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주치의가 봐주고 있는데, 굳이 MAT 의료진이 와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 상태만 확인하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MAT 역할은 중환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것이다.

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의료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환자 담당 의료진과 갈등

마지막으로, 흔하지 않지만 환자의 담당 의료진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병실 의료진이 중환자에 대한 케어는 MAT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호간의 협력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MAT가 mobile ICU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환자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MAT 의료진이 모든 중환자를 전적으로 케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해당 병실의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서 그 의미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현실 문제

쇼크라는 것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이다. 조금만 늦어도 심정지가 오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잘 시행해도 생존률이 약 20%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MAT가 병동에 있는 환자에서 응급 상황(쇼크)이 의심될 때, 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병동 한복판에서 라인 잡고, 약국으로 뛰어가 혈전용해제를 타오기도 하고 힘을 합쳐야만 골든타임 안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함부로 치료하기 어려워진 세상인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 중환자를 조기에 잘 발견해서 살려내면 정말 기쁜 일이기는 하다.

가끔 만나는 안타까운 상황들

종종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임종기에 접어들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중환자실로 이전해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 치료될 가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보통 의식이 없지만 종종 환자의 가족들간 연명치료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 상황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미숙한 사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다.

또 최선을 다 해서 치료해도 끝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허탈해지는 순간이다.

일부 레지던트는 환자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굉장히 심하게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MAT의 한 의사는 “의사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고 밝혔다.

[MAT에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당부의 글]

학생들 중에서는 나중에 바이탈 사인을 다루는 과로 가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인지 조기에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은 모든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신호가 바로 ‘바이탈 사인’이고, 공부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며 친숙해지 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 의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항상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MAT는 계속해서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고, 세계적인 신속대응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서 의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음 속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재후기 학생기자가 체험한 MAT는?

김강현 학생기자



이번 인터뷰는 저에게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에 대해서 전보다 성숙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MA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키지 못한 생명을 보며, 의료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허무함과 자책감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어쩌면 환자의 생명은 의료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결과에 매몰되어 침체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과는 결국 그 과정에 의해 완성되기에,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혹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책보다는 건강한 반성과 피드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환자를 보지 않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재 주어진 의학 공부가 결국에는 환자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앞서 얘기한 과정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처럼 좋은 경험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자분들을 대하는 의료진의 자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MAT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해성 학생기자



컴퓨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며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MAT 선생님들의 눈빛에서 환자의 생명이라는 큰 무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힘이 느껴졌다.

모니터의 여러 수치들을 보고 환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추가해야 하는지 금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다.

비록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병동에서 종종 펼쳐지는 응급 상황들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가장 먼저 나서주시는 MAT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18페이지에 계속

운전 시 실내 미세먼지 농도 낮추는 방법 등

공기청정기는 효과를 보인 소규모 연구들이 있고, 특별히 알려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운전을 할 때에는 외부 공기 유입 차단 상태에서 온도 설정을 높여 에어컨을 틀면 춥지 않게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며 공기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1시간마다 짧게 1~2분 정도 환기를 시켜야 차 내 이산화탄소 및 세균, 곰팡이 포자 등 다른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소변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만큼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와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마스크 착용 등 개인생활수칙 준수 중요



내과학교실(호흡기내과)
문경민(강릉아산병원) 교수

(PM2.5)라고 한다.

황사가 중국, 몽골의 사막과 황토 지대의 누런 먼지가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자연 현상인 반면, 미세먼지는 도시와 공업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 오염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 10 μm 이하의 입자를 미세먼지(PM10), 지름 2.5 μm 이하는 초미세먼지

또한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폐기능이 떨어지며, 기도가 예민해지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 질병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질환자의 경우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망위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 이른 시간 미세먼지 주의

공기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차가워진다. 더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상하이동을 한다.

분지나 골짜기, 겨울, 일교차가 큰 새벽 등에는 지표면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공기의 상하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지표면에 무거운 공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상층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아침 이른 시간은 미세먼지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시간 대이다.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분을 흡수하여 이차적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나 심장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바깥에 나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호흡기질환자…마스크 선택시 의사와 상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제품에 표기된 숫자는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므로 숫자가 클수록 차단 성능이 뛰어나다.

하지만 마스크를 사용하면 호흡 시 저항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호흡기질환자는 적절한 수준의 마스크 선택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고 얼굴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는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평상시 증상을 고려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등 응급약을 챙기는 것이 좋다.

▶ 17페이지에 계속

미세먼지…1군 발암물질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비흡연자에게서 생기는 폐암인 선암이 많이 발생했다는 역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의학적으로는 입자 크기에 따라 침투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6 μm 이상은 주로 인후두 부위의 상기도에 걸리고, 2~6 μm 은 소기도, 2 μm 미만은 폐포까지 침투하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비염, 천식 등 유발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비염, 기관지염, 폐기증,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와 기침이 잦아지고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미세먼지 많은 지역…사망위험도도 증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PM10농도가 10 $\mu\text{g}/\text{m}^3$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나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자들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눈과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가슴이 갑갑하기도 하며, 두통 등이 생기기도 한다.

졸업을 앞두고 6년간의 대학생활에 대한 소회



본과 4학년 조민성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새해가 밝아 온다. 새해라고 해보았자 그냥 달력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만, 매년 1월달마다 인생의 새 페이지가 시작된다는 설렘은 만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해는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첫발을 디디는 해이기 때문인지 더욱 기대가 된다.

처음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졸업이 매우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졸업을 앞두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만 든다. 6년간의 학교생활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들이 마냥 평탄했던 건 아니다. 학교 생활 내내 방대한 의대 학습량에 허덕이며, 보낸 기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일매일을 시험기간으로 보내며 자신과 싸우는 시간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사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기는 했지만 남들은 즐겁게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는데 나 혼자 20대 청춘을 소모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박탈감도 참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러한 시간이 정말 값진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며

낼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마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시절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고, 이때의 배움은 나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생활 6년 간 종종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곤 했는데, 그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전에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들을 거치며 새삼 내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 후부터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아마 졸업 후에도 힘든 일들은 끊임없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6년간의 학교생활이 나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그러한 위기들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이 마냥 무섭지는 않다.

이번에 함께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모두 졸업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점에서 힘내보자!

의과대학 생활 6년을 마무리하며



본과 4학년 조민재

청춘의 시간은 덧없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한해이다. 16학번으로 입학해 어느덧 졸업의 시간이 오게 되었다. 입학할 때만 해도 '졸업'이라는 말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벌써 졸업이 코앞에 다가온 시기가 되었다.

졸업을 앞두며 드는 생각은 '지금의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솔직한 생각은 지금의 내가 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무게감은 내가 입학했을 때 느꼈었던 무게와 지금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게 다 가온다는 생각이 듦다. 그 만큼 많이 배우기도 했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경험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의대에 들어오기 전, 의대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사실 재수를 한 입장에서 재수했던 것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때 많은 벽을 느꼈

던 것 같다.

방대한 공부량, 주변의 뛰어난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기도 했고, '왜 나는 이것 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학 지식은 경쟁이 아니라 본인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스스로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느꼈다. 가족, 친구들을 비롯해 학교 선배, 후배, 교수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의대 생활에 있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많이 힘들어 했을 것이다. 이러한 도움들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실 의과대학 졸업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시작인 것이다. 앞으로 부딪히게 될 어려움들은 지금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과 비교한다면 훨씬 힘들 것이고, 나를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가치를 생각하며 나를 다잡고 이러한 역경을 극복해가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의학교육센터 본격 개소, 운영

우리 의대 의학교육센터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오후 3시 교육연구관 1층 의학교육센터 앞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센터 개소와 함께 가칭 ‘소통1 교실’이라고 명명된 예과 2학년이 주로 사용하게 될 학습 공간의 오픈도 함께 공개되었다. ‘소통1 교실’은 기존의 강의뿐만 아니라 flipped learning, team based learning도 가능하고 다른 교육 시설과 웹으로 소통할 수 있다. 시설 일부는 이승규 교수기금, 우리 의대 1~7기 졸업생들이 기탁한 발전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어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향후 교육과정 변화의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서울아산병원장, 교육부원장, 진료부원장, 기

획조정실장,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총장,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의대 보직교수, 시설팀, 졸업생, 학생 및 직원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채희동 학장은 “‘소통1 교실’과 의학교육센터는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의대 교육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LCME가 시작되는 첫걸음으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에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학교육센터장은 “‘소통1 교실’은 온라인 강의로 소통해지기 쉬운 학생과 교수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우리 의대의 교육 목표인 소통, 윤리, 창의에서 따온 것이다. 앞으로 윤리와 창의의 공간도 확보가 될 것이다.”고 소개하였다.



8기 졸업생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우리 의대 8기 졸업생들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지난 11월 10일 오후 5시 30분 의대 교육연구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달식은 COVID-19로 인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전기금 전달을 통하여 우리 의대 발전을 기원하였다.

8기 김석환(포스코부속의원) 회장은 “매년 흠클링행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COVID-19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번에도 기금만 전달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조만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금이 우리 의대 교육내용 변화 및 쇄신은 물론 우리 의대가 세계적인 의과대학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의과대학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와 의료수요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진료) 활동을 선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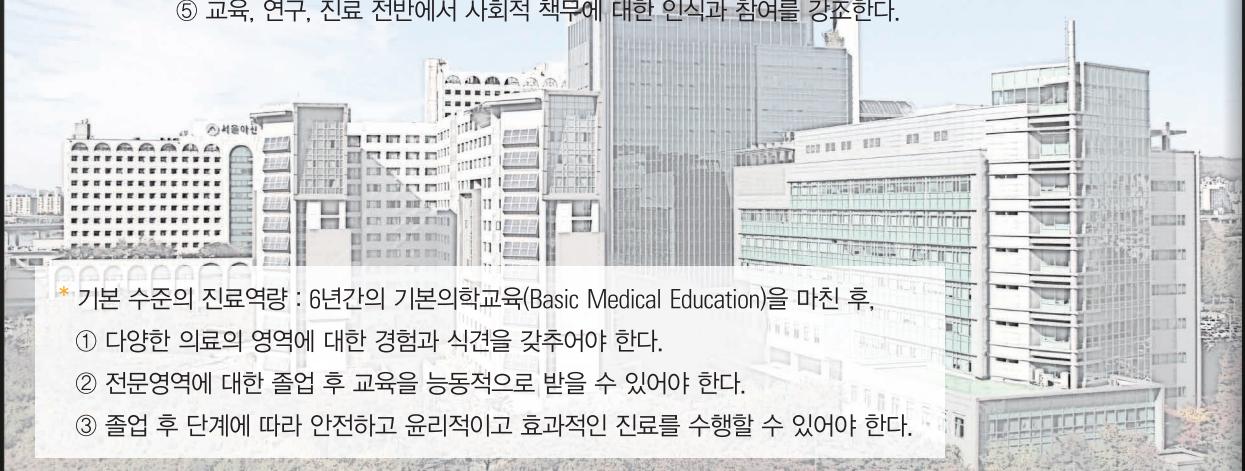
- 목적: 1) 교육 –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
- 2) 연구 – 의학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 3) 봉사 – ① 참된 진료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② 지역, 국가, 국제적 건강 및 보건의료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교육목표: 소통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 졸업성과: ① 전문직업성
② 교육과 연구
③ 소통과 협력
④ 자기 개발
⑤ 환자 진료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울산의대의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졸업생은 기본 수준의 진료 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을 위한 역량, 졸업 후 교육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략: ①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② 공식 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공식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
③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여 졸업 후 교육에 대비한다.
④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 평생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⑤ 교육, 연구, 진료 전반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 울산의대의 도약을 위하여 귀한 정성을 모아 발전기금 조성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보태어 주신 기금은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과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부문의 : 의과대학 기획총무팀 박용상 02-3010-4214, yongsangpark@ulsan.ac.kr

여기서는 그 외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한국의 전통'이라는 말은 이제는 드물게 쓰이고, 대신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 또 예전에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말은 주로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전통'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예전에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말은 주로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전통'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본 명단은 2021. 11. 30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 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자동 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과대학 장학금: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의과대학 위임: 의과대학 관련 기타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첨2 「아산사회복지대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자동 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후원 용도: 병원발전기금 선택(v)세부 내용: 지정 선택(v) 후 아래 세부내용을 선택하여 기입 울산의대 발전기금 / 울산의대 교육연구기금(LCME)

기부 및 후원 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약정서 및 기부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의과대학 기획총무팀 박용상 02-3010-4214, yongsangpark@ulsan.ac.kr





미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교육
목적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

교육
목표

소통 · 윤리 · 창의

소통과 협력

교육과 연구



자기개발



전문 직업성



진료



[졸업 성과]